본보기를 거울로

본보기는 하나의 거울이다. 군중로선교양실천활동을 전개한후 본보기작용을 떠날수 없다. 습근평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활동가운데서 전형을 수립하고 경험을총화하며 제때에 시범추동작용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양실천활동을 심입하는 중요한 절차이고 방식이다.

어떤 거울로 자기를 비추는가에 따라 부동한 문제를 발견할수 있다. 어떻게 거울을 보는가에 따라 문제를 조사처리하는 심도와 강도가 부동할수 있다. 만약 당의 규률을 무시하고 군중들의 바람을 추상화한다면 어떻게 진실하게 문제점과 부족점을 발견할수 있겠는가?

"명령은 사람을 지휘하지만 본보기는 사람을 흡인한다." 본보기를 거울로 삼아야 군중을 위하고 실사구시하며 렴정자를을 인격화, 구체화, 형상화할수 있다. 그리고 작풍개진 요구를 만질수 있고 감지할수 있는 살아있는 본보기로 전환할수 있다. 거울이 깨끗해야 깊은 곳을 비출수 있고 세밀하게 비출수 있으며 방향을 명확히 할수 있다.

본보기는 한개 시대의 정신측량기이다. 간고분투하고 라감히 진보하려면 양선주와 비교해야 한다. "기관에 숨어 화분이 되지 말고 인민군중들속에 심입하여 설송이 되여라."
이는 군중과 련계하느냐 아니면 관료주의를 범하느냐를 검증할수 있는 철리명언이다. 사업과 사회에 어떠한 태도로 림하는가를 알려면 락명의와 비교해야 한다.
본보기를 거울로 이들의 고상한 정신을 척도로 엄격히 자기를 가늠하고 높은 표준으로 요구하며 대공무사한 용기로 대조하고 검사하며 개진하고 수양을 가꾸어야 한다.
이래야만 진정으로 사상과 사업작풍에 대해 대검사, 대조사를 진행하여 자기교양, 자기검사, 자기비판, 자기완벽을 실현할수 있다.

본보기를 거울로 본보기의 영향력과 복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작풍개진에서 높은 표준을 수립하고 교양실천활동을 실제와 련계해야 실효를 거둘수 있다.

편집: 리성호